



열사 죽음의 책임은 명확하다

현대차 앞에 선 열사

한광호 열사가 현대차 앞에 섰다. 노조파괴의 뒷배경이자 기획자인 현대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30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4월 2일 추모의 날 집회를 통해 열사 죽음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차의 대응은 너무 뻔뻔했고, 서초경찰서는 현대차의 사명 노릇에 충실했다. 현대차는 대표단의 항의서한 조차 거부했고, 임시 분향소를 차릴 때는 용역들이 달려들어 조롱하고 방해했다. 동원된 경찰들은 현대차의 정문을 막아섰고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본과 정권은 태도는 딱 이정도 수준이었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책임은 모두 드러났다

유성기업은 모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에게 책임은 더 무거워질 뿐이다.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유성지회가 충남노동인권센터와 조합원 291명을 조사한 결과, 97%의 조합원이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28%를 넘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27%였다. 대부분 유성지회 임원, 간부를 했던 조합원이었다. 한광호 열사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직접 관리했다. 어용노조 조합원이 몇 명인지 점검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직접 불러다 목표 인원까지 지시했다. 검찰 수사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것인가?

열사 앞에 사죄하라

열사가 돌아가신지 벌써 18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성기업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대차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일단 열사 앞에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나오면 된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라.

피엘에이 체불, 이번엔 해결될까?

피엘에이 주주총회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의결했다. 30일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피엘에이 조합원들과 연대 단위들이 대표이사를 막아섰다. 임금체불 해결 없이는 주주총회도 없다는 각오로 주주총회 대응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문제를 다루고, 보증 책임을 공증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엘에이의 꿈수는 멈추지 않았다. 공증 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공동연대책임을 빼버리려고 했다. 결국 1일 전체 조합원이 상경하여 대표이사를 끌어내면서 공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피엘에이 자본은 계속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 투쟁, 대표이사 공증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합원들의 분노는 멈출 수 없다. 피엘에이 자본은 이번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체불임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정신 계승 촛불 추모문화제

- 매주 (월) ~ (목) 18시30분
- 유성기업 영동공장 (월, 수)
- 충북 영동 삼일공원 (화, 목)

■ 지부 임단투 선포식

- 4/7(목) 13시
- 대전노동청